

네스트로 마흐노가 '통합 아나키스트'들에게 반박하다. -2-

심장중의강철

'통합=중앙계획적?'

또한 『답변』의 저자들은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강령』의 어느 부분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강령』이 이야기하는 통합되고 조정된 생산의 개념은 노동자들이 직접 설정한 기구가 생산을 지시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그들은 조정된 생산이라는 개념이 중앙집권화와 국가주의라며, 탈중앙적 생산을 옹호한다.

생산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명확하다. 『강령』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는 수 세대 간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이라 바라본다. 그렇기에 사회는 모두의 것이며,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답변'은 '생산수단의 통합'을 '중앙집권'으로 보고 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중앙'을 얘기했다. 그럼 강령은 진짜로 '중앙집권적 생산'을 옹호했나? 전혀 아니다. 반대로 탈중앙적인 생산을 지지한다. '통합'은 '중앙적'이 아니다. 이들은 애당초 생산자체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산은 모든 부문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따로 분리되어 생산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작업장의 통합'. 생산의 통합은 기술적인 발전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요소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통합적 생산장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인민 대중의 소유다. 노동자와 농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될 것이고 수정될 것이고 이 거대한 생산장과 연결된 또 하나의 생산장인 사회의 입안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이 공장에서의 생산물은 모든 통합적 사회에 속한 노동 전체에 속할 것이고 이러한 통합적인 생산장에 있는 생산이야말로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이다.

그리고 '답변'에서 말한 탈중앙적 경제는 결국 '소유의 분할'에 기초하기에 '경쟁과 반목'이 점차 심해질 것이고 그 연방에 가입한 '소규모 민간 기업'들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주의화가 될 것이다.

'통합'은 '중앙집권적'이 아니다. 반대로 '통합'은 진정으로 '탈중앙적 코뮌주의 생산'이다.

『답변』의 저자들이 생산의 탈중앙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생략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몇몇 독립적인 생산, 고립된 산업, 분리된 기업집단, 심지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처분하는 분리된 공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답변』의 저자들은 탈중앙화 된 생산이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방에 가입한 각 단위는 소규모 민간 기업가일 것이기에 생산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소유의 분할에 기초하기에, 경쟁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생산의 통합은 권위주의적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중앙화 된 생산이 아니다. 생산의 통합은 진정한 코뮌주의적 생산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혁명의 방어? 무력독점?

혁명의 방어의 문제에 관하여, 『강령』은 혁명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생산, 공급, 토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강령』은 또한 이러한 해결이, 그 특권을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한 착취계급이 촉발한 치열한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바라본다. 그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강령』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 “군사 행동에 있어서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작전 계획에 있어서의 단결과 지휘체계의 통일”에 의존할 것이라고 본다. 『강령』은 노동대중 역시 이러한 투쟁의 방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생겨날 모든 무장 세력이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의 의용군이 반혁명세력에 맞선 독자적 투쟁을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의

군대가 반혁명적 학살의 전선에서 더 많은 부분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강령주의는 혁명의 방어를 주장하였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생산, 공급, 토지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곧 원래 이 '특권'을 소유했던 착취계급(소위 부르주아 계급)이 다시 되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에 내전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다시 말하면 사실 부르주아가 돌려주고 자발적 노동자가 된다면 내전이고 뭐고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내전'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군사행동에 있어서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인 작전계획의 단결과 지휘체계에 통일에 의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겨난 모든 자경조직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기서 끝나면 '답변'말한 것처럼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력의 독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강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 각 지방의 '의용군'이 반혁명세력에 맞서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독자적인 투쟁이 가능하다. 독자적인 치안도 가능하며 어느정도의 독자적인 행동도 가능하다. 강령에서의 통일과 체계적은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의 군대가 반 혁명적 전선에서 더 많은 부분을 맡아 싸운다는 뜻이지 그들이 곧 독점되어야한다는 뜻이 아니다.

아나키즘적 조직? 단일 중앙 조직?

이 점에서도, 『답변』의 저자들이 가장 열심히 것은 『강령』을 잘못 표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집행위원회의 개념을 당 중앙위원회, 즉 명령을 내리고 법과 명령을 만드는 위원회로 호도한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아나키스트 기구일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기구는 많은 아나키즘적 조직,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조직에 존재한다.

『답변』의 저자들은 동질적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광범위한 아나키스트 조직이라는 개념은 거부하면서도, 모든 아나키스트 분파가 하나의 “단일한 가족”으로 모이는 통합 조직의 개념은 이야기한다. 그 조직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논쟁적인 문제들을 모든 각도에서 토론하고 검토하는 신문을 모든 나라에 출판하여 아나키스트들을 중재하자고 제안한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디엘로 트루다

마지막 파트다. '조직'문제다. '답변'에서 제일 많이 까고 또 '강령'에서도 제일 많이 반박하는 부분이다. '답변'에서 아나키즘의 집행위원회를 '중앙위원회이자 유일조직'으로 생각한 채 볼셰비키의 그 중앙조직과 동일시했다. 하지만 강령에선 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단일하지 않다. 중앙적이지도 않다. 위원회는 수많은 다른 지방에 아나키즘 조직에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생디칼리즘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통합'이 나온다. '통합'은 중앙집권적이 아니다. 아나키스트들의 '의견불일치'는 '토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토론'은 분명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예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 (에고이스트와 생디칼리스트등)을 통합시키진 못한다.' 반대로 이들은 오히려 노동자 대중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특히 이를 넘어서 아예 아나키스트가 아님에도 아나키즘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아나키스트 조직'이라고 말을 지으며 난리치는 것은 오히려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노동대중의 혁명적인 사회운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일 수 밖에 없다.('자칭' 아나키스트들 말이다. 자칭. 국가 옹호하는데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다.)

스스로 아나키스트라고 자칭하는 개인들이 한 아름 있다 해도, 이들이 아나키스트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고, 그 웅성거림을 “아나키스트 조직”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해롭게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나키즘이 노동대중의 혁명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 혼합이 아니라 전체 ана키스트 세력과 조직들로부터 선별된 ана키즘적 코뮌주의 조직이다. 이것이야말로 ана키스트 운동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뒤범벅인 통합이 아니라 ана키스트 이데올로기의 분화와 탐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동질적인 운동 강령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것만이 ана키스트 운동을 노동대중의 운동 안에서 재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그리고 ана키즘에서 중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혼합과 통합'이 아니다. '강령'은 '이데올로기적인 통합'을 반대했다. 다른 이데올로기를 굳이 ана키즘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다. ана키즘 아니면 ана키즘 아닌거 맞다. 그들을 '억지로 통합'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강령에 기반한 ана키스트들이 조직하고 혁명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지 '이름만 거대한 ана키스트 거대조직'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진짜 쓸모가 없다.(실제로 볼린의 통합 ана키즘은 처절하게 망했다. 그나마 남은 유산은... ана키스트 라이브러리?)

그들의 손에서, 『강령』은 ана키스트 운동과 노동계급에 대한 사악한 음모로 바뀌었다.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강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대표한다. “대중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직의 구체적 형태와 그 활동대는, 가장 높은 곳에 전위당(총동맹), 약간 아래에 동맹이 이끄는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 더 아래에 반혁명에 대항하기 위한 기반으로 세워진 조직(군대)이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그들은 “경찰과 같으며 정치적인 폭력” 기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결국 이들은 ана키스트 총동맹이 지도하는 경찰국가의 상을 그려놓은 것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자 이제 답변을 조곡조곡 또 씹어보자. 답변은 결국 위에서 말했듯 그들은 '강령'을 비판한다 하지만 '강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오독한 '강령'을 비판한다. 자신들이 강령을 멋대로 오독하고 멋대로 권위화 시키고 멋대로 '불세비적 전위당화'를 시키고 멋대로 경찰국가화를 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답변』의 저자들에 따르면, 이 시점에 ана키즘적 코뮌주의 당 같은 것이 등장할 것이다. 어딘가 위에서부터 구성되어, 노동대중의 “상급”조직과 “하부”조직에, 군대에 지침을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비판 문건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독자에 대해 진실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무책임함은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뿐이다.

아나키스트 운동이 취약해진 다른 이유들을 분석하면서, 『답변』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조사, 분석, 비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욕망도 없는 대중의 현재 심리 상태는 결과적으로 가장 쉬운, 가장 적은 저항이 따르는 과정을 모든 정파의 선동가들이 제시하는 ”준비된“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고 말이다.

『답변』에 대한 분석을, 그 놀라운 저자들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자. 그들은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위선을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로 대변한다. “대중의 창조적 가능성에 대해, 대중의 자치적 행동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지도가 이 가능성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에 대해 말해보자. 만약 『강령』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대중들이 자기 해방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러한 욕망조차 없다고 믿는 것이다. 대중들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는 것이라 바라보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이들은 왜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까? '답변'의 저자들은 분명 '강령'을 읽었을 때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에 대항하는 투쟁의 기간 동

안 아나키스트 세력의 조직을 건설해 대중들 사이에 아나키즘을 선전하고 그 투쟁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노동대중이 마침내 자본사회를 무찌르고 노동대중이 주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노동대중의 새 세상이 펼쳐진다. 노동자 대중은 혁명의 완수 이후 자발적으로 또다른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를 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더이상 '혁명'을 도와주던 총동맹과 아나키스트 조직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 동맹과 조직은 자신의 일을 다했고 그럼 마침내 노동자 조직으로 스며들어가 새로운 조직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이 강령이다. 세계 아나키스트 연합은 혁명의 완수 이후 '구체적으로 할 역할'이 없다.[4]

하지만 '답변'은 '아니야 상부에서 하부에게 명령하는 아나코 코뮌주의적 당은 등장할꺼야!'라고 말한다. 정말로 무책임하다. 이러한 방법론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마흐노에게 있어 이 '답변'은 스스로 무가치하고 '위선'에 둘러있는 이들이 '대중'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봤다.

아나키즘은 책임을 떠넘기는 사상이 아니다. 그리고 떠넘겨서도 안된다.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대중에게만 모든 것을 떠넘기면 혁명을 누가 할 것인가? 그대들조차 행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행동하는가? 반대로 '마흐노'는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고싶을 수 있다.

'대중은 행동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대들의 로봇과 기계 아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아나키즘에 있어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나키즘은 대중을 자기편으로 억지로 끌어들여야 할 테니까 말이다. 『강령』을 어떻게든 비난하기 위하여, 이성과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저자들은 결국 저러한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우리의 앞선 논의에서, 『답변』 저자들의 계획이 근본 없고, 우리 운동의 비일관성의 전형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였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답변』은 비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일 뿐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여담

사실 마흐노는 말했다싶이 볼셰비키와의 투쟁에서의 패배 이후 자신 나름의 교훈을 가지고 강령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마흐노에게 찾아온건 지도 볼셰비키데 볼셰비적 아나키라고 욕하는 말라테스타와 혁명에 함께해놓고 정작 지들은 교훈을 얻지도 못했나? 아니 개인주의자들은 애당초 뭘 했나?싶은 반 마흐노적 아나키스트들의 응 니 볼셰비키~라는 드립이였다. 그래서 글을 보면 마흐노가 진짜 '니네가 뭘 했는데! 뭘!!'라는 식으로 화난 듯이 욕설에 가까운 드립까지 박은 것도 있다.(특히 좌뇌 우뇌 드립은 진짜...)

물론 마흐노가 과격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마흐노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긴 애매하다. 분명 통합 아나키즘은 혼란주의가 맞다. 솔직히 말해서 에고이스트와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이 토론한다면 에고이스트들이 화나서 '이 망할 권위주의자들 죽어라!!!'하고 폭탄 던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때 동안 그들은 아무 것도 못할 것도 맞다. 그리고 이들이 강령을 오독한 부분도 있는 것이 많다. (지도와 지원, 통합과 중앙집권등) 마흐노는 이러한 오독도 바로잡을 겸 다시금 강령을 완성시켰다고 본다.

물론 마흐노가 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성시킨 강령은 또다시 후대에 애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권위적으로 변한다면 다시금 자기자신을 몰아내고 사회혁명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4]실제로 마흐노는 "강령"에서 고의적으로 세계 아나키스트 연합이 혁명 이후 할 역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혁명 이후에는 더이상 세계 아나키스트 연합이 할 일이 없고 모든 자치적인 노동조합, 위원회, 평의회등등이 자발적으로 생산, 정치적인 활동을 할 것인데 굳이 이들이 간섭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간섭하면 그건 아나키즘에 본질에 벗어난다.

